

KBS + 정종완 · KBS미래미디어전략국 미래미디어기획부

# 일상 속에서의 JAZZ, 직장인밴드 BE BOP을 연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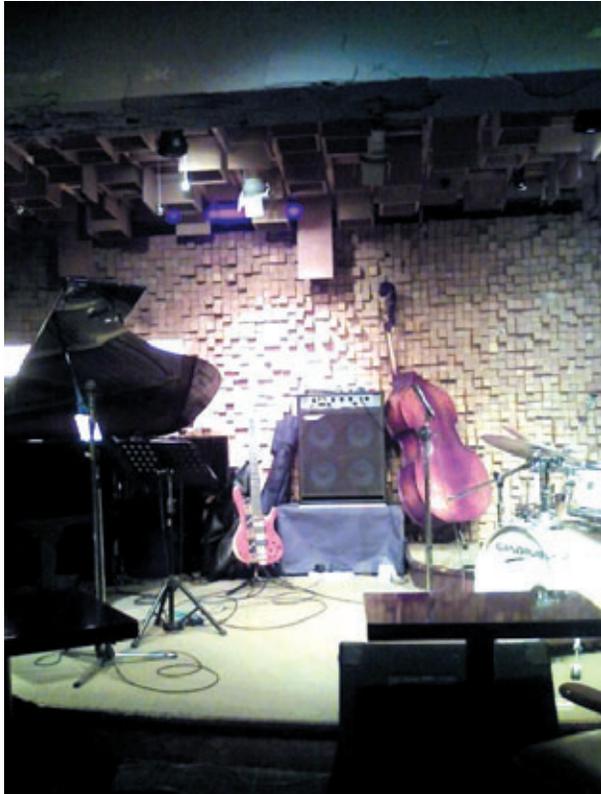
지난 호에 설명했던 재즈 히스토리 중에서 be bop이라는 시대적 의미와 하드웨어적인 의미로서의 변화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필자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동경과 뿌리칠 수 없는 욕구로 많은 장르를 섭렵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 마지막 종착역이 Jazz Field라고 혹자가 말한다면 분명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비상업적 지하 독립연습실]

## 직장인밴드의 태동

10여 년 전 직장인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발단에서 시작된 직장인밴드는 다수의 음악에 대한 동경과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가 학창시절 음악동아리 출신들이겠지만 그 외 순수 취미활동과 클래식, 성악, 재즈 전공자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회적 조류(Social Trend)라고 할 수 있다.



[스튜디오급의 밴드 전용연습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이러한 현상은 분명 대한민국이 놀거리, 취미거리, 특기거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폐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사회초년생들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견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건 예술 분야(음악)에서의 이러한 도약이 다른 분야(스포츠) 못지않게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문화적 총족이 삶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직장인밴드의 사회적 조류(Social Trend)에 한 몫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라이브홀 무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 밴드합주실(시간당 일정액의 렌탈비를 지불하고 음향장비, 악기 등을 이용하고 연습할 수 있는 스튜디오급의 방음된 음악연습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서울만 해도 수백 개에 달하는 합주실 및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지역까지 합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될 정도로 기존의 음악, 음향계통의 관련종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의 지하실을 주 거주지로 했던 예전 70~90년대의 밴드합주실은 패쇄적인 그 당시의 음악분위기를 대변하듯 철저하게 인접한 타 음악인들과는 배제되었으며, 샐러리맨으로 불리 우는 직장인의 참여는 거의 전무했다. 그러다보니 흔히 알고 있는 계란판(흡음효과 또는 방음효과 대응)과 전원배선 등 현재의 안정적인 음향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사운드의 퀄리티 또한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후반 IMF 물결을 넘어 밀레니엄 시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 음악 스타일과 변화의 흐름

초기 직장인밴드는 99%가 7080음악이었다고 본다. 따라 부르기 쉽고 연주하기 쉽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곡이며, 남녀노소를 통해 두루 어필할 수 있었음에 굳이 연주력과 테크닉을 요하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점은 여타 동호회와 다르진 않다. 하지만, 전문 음악인들의 샐러리맨화와 클래식과 팝음악의 크로스오버, 그리고 해외유학파의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전문성 있는 음악/악기 애호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직장인밴드 음악은 다양성을 견게 된다.

초기의 7080음악이 다분히 국내 30~40대를 대변하는 음악 일반도였다면, 그 후의 스타일은 천차만별이다. 90년대 꽤나 유행하던 트래쉬메탈(Trash metal)과 프로그레시브 락(Progressive Rock)부터 애시드 재즈(Acid Jazz)와 소울펑크(Soul & Funk)까지 감상용 음악이 이제는 연주용 음악으로 까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규 커리큘럼 또는 해외유학을 통해 이러한 재즈 분야에 접했던 기존의 연주자들과 달리 직장인밴드 내에서의 재즈는 조금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다. 스터디밴드(구성원 중 일부가 전문연주인으로서 팀 전체를 리딩하고 서로 이론과 테크닉을 공부해가며 연습하는 밴드)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길만큼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분야의 접근이 짧은 시간에 가능해 졌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다양한 인터넷서비스와 온·오프라인 모임 등 많은 소스를 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라이브 홀 스케치

직장인밴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커뮤니티의 연합성(Community Union)과 유니트의 조합(Unit Featuring)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동호회라는 명칭으로 작게는 3~4개의 밴드에서부터 많게는 20여 개에 달하는 밴드가 연합모임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모임은 다양한 조합과 잼(Jam), 깃(Geek) 등으로 서로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추구하게 된다.



[중소형 라이브클럽]

통상 주말을 통해 이뤄지는 합주모임은 인접한 타 밴드들의 참관들이 있으며, 주기적인 연합행사를 통해 오프라인 모임을 경험기도 한다. 흔히 재즈바로 불리우는 중소형의 스테이지를 위주로 한 라이브클럽은 대형 프로뮤지션들이 활동하는 고급 홀에서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소형의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평 이내의 간소한 음향 시스템과 무대 시스템을 갖춘 반면 저렴한 가격과 직장인 대상은 무료대관 등 다양한 무대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 공연홀처럼 스테이지와 객석이 분리되어 전문적인 공연장의 시스템을 갖춘 곳도 여러 곳 있다. 신촌의 깃 라이브하우스(Geek livehouse)처럼 프로페셔널 장비와 화려한 조명 시스템으로 대형 공연장 못지 않은 곳이며, 홍대의 클럽 에반스(Club Evans)처럼 객석이 상층부에 위치하여 그리스의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라이브 클럽도 있다.



[빅 라이브하우스 무대 전경]



[클럽 에반스 무대 전경]

합주실의 경우는 주로 홍대, 신촌, 강남을 위주로 직장인을 고객으로 한 맞춤형 스튜디오가 대부분이다. 거액을 투자하여 드럼세트와 대출력 앰프스피커 시스템, 신디사이저 등 개인이 투자하여 소유하기보다 저렴한 렌탈비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다.



[합주실 스튜디오 전경]

지금까지 간단하게 직장인밴드의 태동부터 트렌드, 그리고 실질적인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실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세계를 경험할거라 장담할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직장인밴드 동호회에서 마스터한 실력으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백발이 되어서 화려한 조명아래 색소폰을 멋지게 불며 처음 가본 낯선 재즈클럽의 연주자들과 자연스럽게 잼 세션(Jam Session)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처럼 말이다.